

국책사업에 의한 마을 소멸과 주민의 이주 장소 선택 : 장소애착의 관점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지를 사례로*

The Disappearance of the Village due to the National Project and the Villagers' Choice of Resettlement Sites

: Focusing on the Case of Gadeokdo New Airport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Place Attachment

김민주**
Min Ju Kim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사례 분석: 대항마을 주민들의 장소애착과 이주 지역 선택
- IV. 연구의 함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이주해야 할 장소를 선택할 때 정부가 마을 주민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사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따라 사라질 가덕도 대항마을이다. 이를 위해 장소애착 이론에 기초하여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착근성 등 장소애착을 구성하는 요소가 대항마을 주민들의 이주 장소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대항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참여 관찰을 한 결과에 따르면, 장소애착을 지닌 대항마을 주민들은 장소애착의 어떤 요소가 더 작용하는가에 따라 이주하고자 하는 곳이 다르게 나타났다. 장소정체성과 장소착근성이 더 강하게 작용된 이들은 현재의 마을과 가까운 가덕도 내 인접 마을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반면, 장소의존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이들에게는 가덕도와 멀리 떨어진 인근 도시나 또는 거리에 상관없이 이주하며 받게 될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였다. 연구의 함의는 두 가지이다.

* 이 논문은 2023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공공인재학부 교수

논문 접수일: 2025. 2. 19. 심사기간: 2025. 2. 19. ~ 2025. 3. 28. 게재확정일: 2025. 3. 28.

첫째, 이주 후에도 장소애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장소정체성과 장소착근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존 마을과 가까운 곳에 이주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소의존성의 경우 정부는 마을주민의 장소의존성을 유지 시켜주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적 목적으로 마을로 전입한 외지인에게 영향을 받은 장소의존성에 의한 이주 장소 선택도 존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항마을, 이주, 장소애착이론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out implications for government to consider for villagers who are forced to leave their villages for large-scale national project when choosing a place to relocate. The case is 'Gadeokdo Daehang Village', which will disappear due to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Based on the theory of place attachment,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place attachment, such as place identity, place dependence, and place rootedness, influences villagers' choice of resettlement location. In this study, interviews and observations were conducted with residents of Daehang Vill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place where people want to relocate differs depending on which of the place attachments is more dominant. Those with a stronger sense of place identity and place rootedness wanted to move to a neighboring village in Gadeokdo, which is closer to Daehang Village. Those with a stronger sense of place dependence wanted to move to a nearby town that was not too far from Gadeokdo, or to an area where they could maximize the compensation they would receive regardless of the distance from their current village. The implications are twofold. First, in the case of place identity and place rootedness, which will persist for villagers after relocation,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relocation villages close to their existing villages. Second, in the case of place dependence,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villagers' place dependence, but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there are also preferred relocation sites that are influenced by outsiders who move into the village for investment purposes.

□ Keywords: Gadeokdo New Airport, Gadeokdo Daehang Village, Resettlement, Theory of Place Attachment

I. 서론

인간은 공간(space)과 장소(place)에서 살아간다. 공간과 구별되는 장소는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현장이다(Tuan, 1977). 마을도 장소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을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은 장소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마을이 작고 비교적 외부와 구분되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을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마을주민은 더욱 더 장소감(a sense of place)으로 마을이라는 장소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을이 불가항력적 이유로 사라진다면 그곳에 살던 마을주민들은 어떻게 될까? 어디론가 이주를 해야 한다면, 그들은 어디로 이주할까? 이주할 곳을 선택할 때 그동안 살았던 마을, 즉 그들이 오랫동안 거주해오던 장소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은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사례란 약 15조 원(공항부문 13조 4,913억 원, 도로부문 5,209억 원, 철도부문 1조 2,7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따라 사라질 가덕도 대항마을 사례이다.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해당 이슈 속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직접 사업대상지이자 가덕도 섬에서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마을인 대항마을의 마을주민들의 이주에 관한 것이다. 대항마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소개는 뒤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과 비교할 때 가덕도 내의 아주 작은 섬마을이 대항마을이다. 이 마을주민들이 이주할 상황에 놓여있다. 다시 말해, 대항마을에서 장소감을 지니며 살던 마을주민들이 대형 국책사업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덕도 내 대항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이주할 곳을 선택할 때, 그들이 오랫동안 마을이라는 장소에서 살아온 바로 그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섬마을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곳에서 태어나서 거주지 변동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되어 이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로서 마을에 살았던 그들의 마음이 이주 지역 선택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종의 가설을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마음은 장소감에서 비롯된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형 국책사업에 따라 이주할 마을주민들의 이주 장소 선택에 대해 장소애착이론(theory of place attachment)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이주해야 할 장소를 선택할 때 정부가 마을 주민들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한때(특히 선거철에) 연일 주요 매체에서 보도되었고, 지금도 공사 발주와 관련한 이슈들이 보도되고 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사업 대상지 마을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주가 가장 큰 이슈이다. 마을사람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어디로 이주해야 할지 고민해왔고, 지금은 눈앞의 현실이 되어 자신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각자 이주 지역을 거의 선택한 상태이다. 마을주민들의 이주가 여타 사람들에게는 즉,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못하여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국책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의 터전을 떠나게 된 이들은 일종의 정책비용부담자들이다. 인용된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되겠지만 이들은 ‘쫓겨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마을주민들에 대해 초점을 둔다.

II. 이론적 논의

1. 장소애착의 구성요소

장소로서 마을은 그곳 마을주민에게 장소애착을 갖게 한다. 이는 장소애착이론에 따른 것으로, 장소와 관련된 사람이나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애착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에 해당한다. 물론 단순히 장소와 관련되거나 단편적인 장소 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장소는 물리적 공간이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 기억, 감정, 느낌, 생각, 가치 등이 투영되어 의미(meaning)를 지니는 것으로 인지되어 수용될 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것이다(Canter, 1997).

공간을 토대로 하여 시간에 따른 장소감(sense of place)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물리적 공간은 장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장소가 공간보다 더 구체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이라는 의미는 물리적 크기가 아닌 의미와 가치의 구체성을 말한다. 도시나 마을 자체도 장소가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해당 공간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그 공간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그 공간은 장소가 되는 것이다(Tuan, 1977). 장소애착 이론에서는 장소가 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의미, 가치, 장소감이 바로 장소애착이다. 다시 말해, 장소애착은 장소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특수하고 독특한 감정으로, 사람과 특정 장소 사이에 생기는 감정적인 유대감이나 연대감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Najafi and Sharif, 2012: 7637-7638; Hidalgo and Hernandez, 2001: 273-274).

이러한 장소애착은 초기에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과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의 두 차원을 결합하면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둘이 장소애착의 구성요소로 논의되었다(Williams and Roggenbuck, 1989). 하지만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한 뿌리의식, 근원의식, 고향의식 등으로 생기는 장소애착을 설명하기 위해 장소착근성(place rootedness)이 제시되었다. 이후 장소애착의 구성요소로 장소정체성 및 장소의존성과 더불어 장소착근성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장소애착의 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Gustafson, 2001; Harris et al., 1996; McAndrew, 1998; 박경운, 2014; 최열·임하경, 2005). 그래서 장소애착이론에서는 장소에 의해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차원의 심적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착근성을 장소애착의 구성요소로 한다.

우선 장소정체성은 장소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줌으로써 생긴 애착이다. 장소와 관련되거나 장소를 이용하고 머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장소와 연계하여 인식하는 경우이다. 그 결과 장소에 대해 정서적 혹은 상징적 애착(symbolic attachment)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는 다음에 설명될 장소의존성의 기능적 애착(functional attachment)과는 구분된다. 장소와 관련된 의식적·무의식적인 이상, 신념, 선호, 감정, 가치, 목표, 행동 성향 등 개인적 정체성을 정의하게 되는 자아 차원의 애착이 장소정체성이다(Proshansk, 1978). 실제로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에 소속되려는 감정을 지니고 있고, 그 특정한 장소는 다른 장소와는 구분된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그 장소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지하면서 드러내기도 한다(Shamsuddin and Ujang, 2008). 스스로를 규정하거나 인지할 때 특정한 장소가 상징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되어 감정 속에 내재화된 것이 장소정체성인 것이다. 장소인식(place perception)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장소정체성의 그 기본요소는 물리적 환경(physical setting), 인간 활동(activity), 의미(meaning)이며, 이 요소들의 변증법적 결합으로 장소정체성이 형성된다(Relph, 1976). 이는 Relph(1976)가 말하는 ‘장소에 의한 정체성(identity with place)’이다. 그는 ‘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place)’ 뿐 아니라, 한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는 그 ‘장소에 의한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부인으로서 장소를 경험하는지 아니면 외부인으로서 장소를 경험하는지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 예로 태어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는 마을 주민의 경우 외모부터 정치적 성향까지 자신의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자신이 거주해온 장소와 관련하여 형성하기도 한다(Relph, 1976). 이처럼 장소정체성은 정체성의 주체에 따라 구분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소에 대한 내부인으로서 마을 주민 각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장소에 의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장소의존성은 앞서 언급한대로 장소에 의한 기능적 애착이다. 장소 그 자체나 장소 내의 자

원(사회적·물리적 자원)을 통해 자신의 욕구(needs)에 부합되는 인식을 강하게 느끼고 인지하면서 생기는 애착이다. 장소의존성의 말에서 의존한다는 말이 곧 그런 의미이다. 장소가 개인의 특정한 활동 및 목표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여겨지거나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면서 강하게 인지되는 애착이다(Najafi and Sharif, 2012: 7638-7639). 그래서 장소가 제공하는 기능과 효용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장소의존성이 생기고 유지된다(Smaldone, Harris, and Sanyal, 2005). 대안적 장소(alternative place)와 비교할 때도 장소에 의한 기능과 효용의 정도에 따라 장소의존성의 강약이 결정된다. 물론 이 역시 시간의 축적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 기능과 효용에 따른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장소에 의해 효용을 체감하고 기능적 필요성이 충족되면서 생기는 장소애착이다.

장소착근성은 장소를 토대로 하여 장소에 뿌리를 내려 살아오면서 형성되는 애착이다. 이는 일종의 혈통유지에 의한 토속성(autochthony)에 기반하여 생기는 감정이다. 조상 대대로 뿌리내려 살던 곳에 이어서 살아가면서 장소에 의한 근원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생긴다. 그래서 장소착근성은 뿌리내림에 따른 안정감과 자긍심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장소착근성에 의한 배타성과 폐쇄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장소의존성에서 말하는 장소가 주는 혜택이나 유용한 도움 및 효용이 없더라도 뿌리내려 살아온 장소에 의한 장소착근성은 생긴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감(장소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라고 해도 자신의 계통 질서가 그 장소에서 시작되었고 또 계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장소착근성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장소 자체나 장소 내의 무엇인가의 두드러짐이 전제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소착근성을 조용한 장소애착이라고도 한다(Tuan, 1977).

이처럼 장소애착의 세 가지인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착근성은 장소라는 물리적 토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장소로서 마을에 속한 주민들 역시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장소애착을 형성한다. 마을이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마을과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시키기도 하고, 마을이라는 장소나 그 속의 장소자산에 의해 기능적 가치를 향유하면서 장소의존성을 지니기도 하고, 마을에 의해 자신의 뿌리 의식이 생기면서 존재로서 근원의식도 느낀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강하게 나타나면 장소애착의 정도는 더 높다. 특히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주지 변동 없이 오랫동안 거주한 이들은 그 시간의 축적에 따라 장소애착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그 정도가 더 견고하게 형성된다. 또 지리적으로 폐쇄성이 강하면서 지형이나 지세와 같은 장소 아이콘(place icon)이 명확하고 풍부할 때 이러한 장소애착은 더 강화되기도 한다(Hull, Lam, and Vigo, 1994).

2. 장소와 마을의 소멸

그런데 만일 그런 장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 지리적으로 외부로부터 폐쇄성이 강하고 오랫동안 거주하며 장소애착을 지니게 된 마을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장소로서 마을에 의해 형성된 장소애착도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장소에 의해 형성된 장소애착이라면 그 장소의 사라짐으로 인해 장소애착도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Dewy(1938)의 말처럼 경험이 당시의 환경과 인간 간 상호작용에 의해 생긴다고 한다면, 환경에 해당하는 장소가 없어지므로 더 이상 장소애착의 경험도 생기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장소라는 물리적 토대의 소멸은 장소로부터 기인하는 것들을 함께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을의 사라짐 혹은 마을소멸은 곧 장소소멸이라고도 한다(김민주, 2023).

하지만 장소의 소멸이 ‘곧바로’ 장소애착 등 장소로부터 기인하는 것들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소애착을 형성하게 하는데 물리적 토대로서 장소는 매우 중요하지만, 장소애착이 형성될 때 시간의 축적이 기여되었기 때문에 설사 그 물리적 토대인 장소가 없어진다고 해도 축적된 시간의 무게까지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쉬운 예를 들면, 인간이 누군가와 오랫동안 만나서 경험했던 감정이 그 누군가와 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그 감정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전통(tradition)도 물리적 실체의 소멸 이후의 지속과 존속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의 경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곧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 감정을 더 붙잡기 위해 별도 노력(기억하기의 시간과 공간 마련, 상징물 만들기, 의례 및 보존 의식 등)을 하기도 한다.

특히 인간의 기억이 그렇다. 인간의 기억은 서사성과 연관되고 경험에 따른 시간적 특성도 반영되어 있어서 급작스러운 망각적 단절이 되지는 않는다(김종규, 2013). 무엇보다도 서사의 힘이 지속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사의 대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상에서 비롯된 그 서사의 영향까지 곧바로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치 터널링(tunneling) 효과처럼 대상이 결핍되거나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역설적으로 더 집중하여 기억하기도 한다(Mullainathan & Shafir, 2014). 오랫동안 시간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다양한 서사와 감정 경험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 사라진다고 해서 곧바로 그 마을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애착이 없어지거나 단절되지는 않는다. 설사 좋지 않은 기억이나 부정적이거나 비현실적 기억과 감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불가항력적 이주에 따라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고향마을에 대한 기억은 지속되기도 한다(이재복, 2023).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서 언급된 Dewy(1938)의 상호작용에 따른 경험도 환경으로서

장소의 소멸에 따라 장소에 의해 새롭게 생길 경험의 희박성을 말하는 것이지, 기존에 생긴 마을에 대한 장소애착 경험의 기억이 당장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교적 긴 시간을 마을이라는 장소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장소애착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형성된 장소애착은 설사 그 장소가 사라진다고 해서 곧바로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내 이주 지역 선택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국가 간 이주 지역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이다. 비록 본 연구와 같이 국책사업으로 인해 마을이 소멸되면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된 이들의 이주 지역 선택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지만, 이 두 부류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부류인 국가 내 이주 지역 선택과 관련한 연구들은 한 국가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지역 선택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도출한 영향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김유하 외, 2023; 이민주·백일순, 2024; 이상욱·권철우, 2019; 최선·이정은, 2022; Greenwood, 1997)을 비롯하여, 고향 향수나 거리의 가까움 등 고향 요인(김원동, 2015; 김은석·하지영, 2016; 이민주·백일순, 2024), 그리고 개인의 선호나 감정 상태 등의 요인(김은석·하지영, 2016; 이민주·백일순, 2024; 최선·이정은, 2022; Greenwood, 1997), 또 임금이나 소득 차이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요인(김은석·하지영, 2016; 이상욱·권철우, 2019; Graves, 1980; Graves, 1983; Partridge & Rickman, 1997), 편의시설이나 공공서비스 혜택 등을 포함한 정주 여건(김유하 외, 2023; 이상욱·권철우, 2019; McCann, 2013; Tiebout, 1956; Partridge & Rickman, 1997) 등이다. 국가내 다양한 이주 유형만큼 여러 요인들이 이주 지역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 내 이주민들이 이주 지역을 선택할 때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국가 내 이주 관련 연구의 경우 본 연구와 같이 마을 소멸에 따른 ‘이주 지역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마을이나 일정 구역내 거주민의 이주 상황에 놓인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존재한다. 공공사업으로서 댐 건설(이정훈, 2017; 정형식, 2013)이나 주택지구 개발지나 재개발(김도형, 2023; 도난영·최막중, 2006; 이용규·계용준, 2011; 현영섭, 2012) 등이 그 사례들이다. 또 무허가 정착지 내 이주 사례에 관한 연구도 존재한다(정재원·구자훈, 2024). 이 연구들은 이주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이주 대책에 관한 논의(김도형, 2023; 정재원·구자훈, 2024), 그리고 이주 후 정착 및 이주민의 삶에 관한 논의(도난영·최막

중, 2006; 이용규·계용준, 2011; 이정훈, 2017; 정형식, 2013; 현영섭, 2012)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이 이주 상황에 놓였을 때 이주 지역을 선택하는 연구와는 논의의 초점은 다소 다르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는 마을 및 일정 구역 내 사람들의 이주 전과 후의 문제점 및 갈등이나 대책, 그리고 그들의 재정착에 관한 이슈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두 번째 부류인 국가 간 이주 지역 선택과 관련한 연구들은 이주민들이 다른 국가로 이주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네트워크 존재와 언어 및 문화적 친밀성·유사성 요인(권기철, 2017; Robinson & Segrott, 2002; Augusto & King, 2020), 자신의 국가에서 경험한 사회 내 구조화된 문제 요인(신지연, 2021; 안하경·김종섭, 2023; Green, 2011; Augusto & King, 2020), 이주 매개의 수월성을 비롯한 국가 수용도 요인(Crawley, 2010; Koser & Kuschminder, 2015; Robinson & Segrott, 2002; Van Hear, 2014), 그리고 이주할 곳에서의 새로운 기회 및 투자처 발굴 가능성 요인(권기철, 2017; 안하경·김종섭, 2023; 이용승, 2014) 등이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이주 지역 선택은 국내 이주 지역 선택과는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국내 이주와 비교할 때 상대 국가의 상황 및 여건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비록 자발적 이주를 한다고 해도 그 자발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보도 제공해 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이주 지역 선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본 연구는 이들 연구와는 달리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국책사업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주 사례를 분석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선행연구 모두 이주자들의 이주 선택은 자발적이거나 혹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이주에 관한 사례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는 이주자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준 고착된 사회문제들로 차별, 억압, 강제, 탄압, 불공정 등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주 유형의 다양성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주 유형의 사례를 추가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따라 마을 자체가 사라져 이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하는가에 대한 사례는 사례로서도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지 않은 새로운 이주 사례이자 특수한 사례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기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가 될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주라고 할 때, 장소 개념의 관점에서 이주 지역 선택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주할 장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지역 이동에서도 현재

거주하는 곳보다는 갈 곳, 그리고 국가간 이주에서도 이주 국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물론 어떤 요인으로 이주할 곳을 선택하는가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주해가는 곳에 초점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존에 거주한 곳은 거주한 이들에게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일정한 의미를 준 곳이므로, 그것이 이주할 곳을 선택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주 지역 선택에 관한 분석에서는 그 점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는 기존에 거주한 곳의 불만이나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언급은 이주민들이 기존에 거주하는 곳에서 받은 영향이나 경험에 관한 심층적 분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주할 곳의 선호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언급되는 정도이다. 그래서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달리 이주 지역 선택에 대해 장소 개념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본 연구가 지니는 또 다른 차별성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의의와 유용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본 연구만의 차별성을 통해 이주 지역 선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Ⅲ. 사례 분석: 대항마을 주민들의 장소애착과 이주 지역 선택

1. 사례 개요

본 연구는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지가 된 마을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게 되어 이주할 곳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예정인 가덕도 대항마을 사람들이 분석 대상이다.

가덕도 대항마을은 부산시 강서구에 속한 25.22km²의 면적의 가덕도라는 섬의 여러 마을(동선동, 성북동, 놀차동, 천성동, 대항동) 중 한 마을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가덕도 중에서도 바로 이 대항마을(대항동)에 건설된다. 대항마을이 없어지고 그곳에 공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의 위치 소개를 할 때도 대항마을 항구 일대라는 의미의 ‘대항항 일원’으로 표기되고 있다(부산광역시 강서구청, 2022). 2025년 1월 현재 이곳에는 주민등록 인구 기준 총 434세대 69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jumin.mois.go.kr). 하지만 이어서 언급하겠지만, 이 세대수와 주민수는 실제 대항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와 차이가 크다. 특히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살아온 마을주민의 숫자와도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대항마을에는 272가구 415명의 주민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말에는 306가구 480명

으로 갑작스럽게 주민이 늘었고(한겨레21, 2021), 그 후에도 기존 세대에 전입한 인구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20년 전에도 마을의 등록 인구가 급격히 늘기도 하였는데, 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외지인의 유입 때문이었다. 실제로 2021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가덕도의 신축공사 허가 건수는 3배 증가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도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여 관련 대책(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을 세우기도 했다(KNN, 2022). 대항마을에 유입된 외지인 관련 내용은 뒤에서 다시 언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항마을을 직접 사업지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년간 두 번의 철회(백지화)를 겪었고, 현재는 건설이 최종 확정되어 2029년 12월을 개항목표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덕도 신공항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는 말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식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되다,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는 타당성 결과에 기초하여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게 된다.¹⁾ 이후 2012년에 다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언급하면서 재추진되었지만, 2016년 6월에 역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이 대안으로 제시되며 신공항 건설 사업 계획을 다시 철회하게 된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2018년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의 공약으로 다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결정적으로는 2020년 오거돈 시장의 자진사퇴로 진행된 2021년 보궐시장 선거에서 당시 여당과 야당 모두가 가덕도의 대항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야 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1년에 제정되었다. 2022년에는 약 15조 원의 예산이 소요 됨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고, 2023년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법」도 제정되었다. 이러한 관련 법률 제정에 여야 모두 적극적이었다. 2024년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했고 부지조성공사 계약도 체결되었다. 2025년 1월 현재는 대항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보상책정 과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물권조사 및 현장조사 완료)에 이르렀다.

1)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의 명칭은 다양하게 불렸다. 남부권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등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으로 불리고 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마을을 떠나게 될 대항마을 주민들이 그들의 이주 장소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때문에 현장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인터뷰는 마을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그동안 다른 곳에서 거주하지 않고 대항마을에서 계속 거주하며 살아온 이들 중에서 마을 청년회와 노인회를 통해 눈덩이 추출 방식(snowball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단, 연령대별 분포를 고려하기 위해 눈덩이 추출 과정에서 각 연령대별 3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30대 이하의 경우 마을에 계속 거주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청년회 소속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표 1>과 같이 인터뷰 대상자는 남성 12명, 여성 8명이며, 40대 3명(A~C), 50대 3명(D~F), 60대 3명(G~I), 70대 7명(J~P), 80대 4명(Q~T)이다. 이와 함께 비참여 관찰은 이들이 모인 대화 현장에서 순수 관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은 2025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현황

구분	성별	연령대	직업 업종	거주기간	구분	성별	연령대	직업 업종	거주기간
A	남성	40대	어업, 자영업	40여년	K	남성	70대	어업, 농업	70여년
B	남성	40대	어업, 자영업	40여년	L	남성	70대	어업	70여년
C	남성	40대	어업	40여년	M	여성	70대	어업, 농업	70여년
D	여성	50대	어업	50여년	N	남성	70대	어업	70여년
E	남성	50대	어업	50여년	O	여성	70대	어업, 농업	70여년
F	남성	50대	어업	50여년	P	여성	70대	어업, 농업	70여년
G	남성	60대	어업, 자영업	60여년	Q	여성	80대	어업, 자영업	80여년
H	남성	60대	어업	60여년	R	여성	80대	농업	80여년
I	여성	60대	어업, 농업	60여년	S	여성	80대	어업, 농업	80여년
J	남성	70대	어업, 농업	70여년	T	남성	80대	어업	80여년

* 직업 업종의 경우 섬마을의 특수성에 따라 명확히 한정된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어장(해녀 및 해산물 수확 포함)을 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가게 운영 등 자영업도 함께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직업 업종으로 표기하기 힘든 면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관련된 일을 한다면 모두 표기하였다.

인터뷰의 질문은 5개로 한정하고(질문①: 본인에게 대항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질문②: 마을을 떠나게 된 심정은 어떻습니까? 질문③: 어디로 이주할 계획입니까? 질문④: 왜 그곳으로

이주할 생각입니까? 질문⑤: 이주 후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외는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도록 하였다. 비참여관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그에 따라 이주하게 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을 통해 획득한 자료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장소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대항마을이 자신에게 지니는 의미(질문①)와 이주하게 된 심정(질문②), 그리고 이주 후의 삶(질문⑤)에 관한 대답에 나타난 장소애착의 세 가지 차원(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착근성)을 통해 이주할 장소가 선택된 이유(질문③, 질문④)를 분석한다.

인터뷰 질문을 이처럼 5개로 한정하면서 특히 질문①, 질문②, 질문⑤를 통해 장소애착 구성 요소를 도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마을 사람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장소애착 이론에 보다 직접적으로 구성된 당초 질문의 수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당초 질문은, 장소 정체성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잡고 있는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본인의 삶과 어떤 관계로 자리 잡고 있는가?”,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였고, 장소의존성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얼마나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마을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였고, 장소근원성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지니고 있는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얼마나 뿌리내렸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을 잠시 떠나 있을 때(과거 경험이나 미래 예상) 마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마을 사람들 간에 결속력이나 소속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였다. 이러한 형태의 질문은 장소애착이론에 기반하여 장소애착 구성요소별 질문이기 때문에 분석의 용이함과 타당성을 더 높일 수 있지만, 응답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상황(예, 인터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비슷한 형태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서 응답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하였다. 실제로 장소애착은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의 두 차원의 결합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장소애착의 주체 입장에서는 그 둘의 구분이 느슨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Williams and Roggenbuck, 1989).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70대와 80대가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질문①, 질문②, 질문⑤,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여 그 응답을 통해 장소애착의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인터뷰와 함께 비참여관찰 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장소애착 조사를 위한 한정된 질문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마을 이주에 관한 것이라면 마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는 인터뷰 대상자인 A와 J의 의견에 따라 인터뷰의 수를 5개로 한정하고 그 외 자유 의견과 대화 관찰 등을 통해 장소애착의 구성요소와 그에 따른 이주 선택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²⁾

한편, 본 연구의 인터뷰는 대항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지금도 살고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 이루어졌다. 앞서 마을 주민의 수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현재 오래전부터 거주해 온 주민이 아닌 이들이 마을주민으로 등록(예, 신공항 건설에 따라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자본 유입으로 전입한 이들과 기존에 살다 이사 간 후 역시 신공항 건설 소식으로 다양한 이유로 다시 전입한 이들)되어 있어서 그들은 제외하였다.

3. 분석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장소로서 대항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그들의 장소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예정이다. 국책사업에 의해 마을이 소멸되고 그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 이어나 이주와는 다른 상황이다. 하지만 이주가 불가피하고 강제적이라고 해도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는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가덕도 내 대항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이주할 곳을 선택할 때, 그들이 오랫동안 마을이라는 장소에서 살아온 바로 그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선 대항마을 사람들에게 대항마을은 과연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주하게 된 심정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에서도 장소로서 대항마을에 대한 감정을 알 수 있다.

1) 장소정체성

대항마을 사람들에게 장소로서 대항마을은 어느 도시의 마을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주로 ‘우리 동네’로 표현하고 있는 이들에게 대항마을은 ‘내 몸과 한 가지’, ‘내가 바로 이 동네나 마찬가지로’, ‘이 동네에서 내가 만들어졌다’, ‘이 동네가 바로 내다’, ‘함께 살아가는 동무’, ‘여기서 내가 피고 지고’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하게 되어 ‘내 몸 반쪽이 떨어지는 것’, ‘대항 동네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 ‘동네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것’, ‘동무가 없어지듯 본인도 없어지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로 이들은 70대 이상의 주민들인데, L의 언급처럼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하는 것은, 시간의 축적에 따라 마을이라는 장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J는 마

2) 물론 그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장소애착이론에 기초한 장소애착 구성 요소별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이 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점은 본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었지만,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다.

을을 내 몸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Relph(1976)가 장소인식에 의한 장소정체성의 가장 높은 단계인 ‘존재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의 수준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장소에 완전한 일체화가 되면서 장소가 자신의 일부이자 자신 역시 장소의 일부가 된다고 인식한다. 이와 비슷하게 80대인 R도 자신의 삶이 곧 대항마을 속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동네가 내 몸 한 가지입니다(내 몸과 같다는 의미). 여기서 태어나서 살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했으니 이 동네나 마찬가지입니다.…이런 곳에서 쫓겨나니 마음이 안됐지. 내 몸 한 가지인데 반쪽이 떨어지는 거지.” (J, 70대, 남성)

“우리가 물(육지)이나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인지 말할 때 우리는 대항동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네가 있으니 나도 있고 여기 친구도 있는거지…말이 이주이지 뭐 나랏 일에 쫓겨 가는 거지. 이제 대항 동네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게 되겠지…이제 떠나면 동네 살던 그 정이 그리울거고…” (K, 70대, 남성)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던 이 동네에서 내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가 있으니까 나도 있고 또 내가 이 동네에 할 수 있는 것도 하고…이웃기간에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살아가고 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동네가 바로 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동네가 없어지면 뭐 나도 없어지는 마음이 들겠지…(이주)가서 살면 마음이 좋지 않겠지…” (L, 70대, 남성)

“우리 대항(현지에서는 대항마을을 줄여서 그냥 대항으로 부르고 있음)이 나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곳이고…(대항마을은) 내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무입니다. 그 동무가 없어지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Q, 80대, 여성)

“여기서 내가 피고 지고 여기서 내가 죽고 그럴 건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겠나.” (R, 80대, 여성)

이는 곧 장소애착에서 장소정체성에 해당하는 마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장소와 결부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나라는 존재의 삶이 마을의 존재와 함께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비단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만 드는 마음은 아니다. 대항마을에서 비교적 젊은 세대에 해당하는 40대에서도 유사한 감정을 볼 수 있다.

“부산(대항마을에서는 육지의 시내를 주로 부산으로 표현함)에 가보면 도시 사람들은 자기 동네를 따로 생각을 잘 안하던데…우리는 바로 이 동네를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고 하니 언제나 나한테는 이 동네가 나를 생각할 때

함께 생각되는 곳입니다. 동네가 없어지면 함께 생각할 동네가 없어지는 거니까 상심이 큼니다. 이제 도시 사람도 아니고 섬사람도 아니고….”(A, 40대, 남성)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하도(많이) ‘동네 일’을 말하고 동네 무슨 일들이 있고 없고 하면서 계속 동네 동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우리 이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동네가 나한테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있게 해준게 …바로 우리 부모도 함께 있게 해준게 이 동네입니다. 나는 바로 이 동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 젊은 우리도 나를 이렇게 만든 이 동네를 떠나는 마음이 그런데 동네 노인들은 더 그렇습니다.”(B, 40대, 남성)

A의 말처럼 이주하게 되면 ‘도시 사람도 아니고 섬사람도 아닌’ 사람이 되듯이 정체성의 상실을 겪을 걱정도 한다. 또 B의 표현처럼 마을 어른들이 ‘동네 일’을 자주 말한다는 의미는 마을주민들의 삶 속에서 동네의 여러 일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대항마을에서는 각종 계(契)를 비롯하여 전통 공동 어로 작업인 ‘승어들이’³⁾와 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의 공동 배분(이를 ‘동네 돈’이라고 부른다) 활동 등이 있다. 대항마을 사람들에게 동네 일은 단순히 마을의 소소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네 일, 즉 마을 기반의 활동을 자신의 삶과 직접 결부시켜 인식한다.

“동네 일은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살면서 내 일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동네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내가 살아가고 또 동네도 굴러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K, 70대, 남성)

2) 장소의존성

대항마을 사람들은 이처럼 대항마을을 자신의 삶에 결부시켜 생각하는 장소정체성과 함께 역시 마을 기반의 경제 활동으로 기능적 효용인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출하고 향유하면서 장소의존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대항마을은 작은 섬마을이고 어업이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어업에 종사했던 이들이다. 나이가 들고 또 연육교가 생기면서 업종 변경을 하여 지금은 모든 이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생계 수단은 섬마을이 주는 자원이다. 지금도 봄철이 되면 개인 생업과는 별도로 마을의 전통 공동 어로 활동인 ‘승어들이’를 하며 마을의 공동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균등 배분하고 있다.⁴⁾

3) 승어들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장소의존성에 대한 설명에서 자세히 다룬다.

그래서 아래에서처럼 ‘섬이라서 먹고 살아갈 수 있고’, ‘송어들이로 먹고 살게 해주고’, ‘동네가 먹여 살려 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이 대항마을이라는 장소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은 비교적 자명하다. 섬마을의 주민들의 삶은 해당 섬의 자원이나 마을의 자원을 생산수단으로 하여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주에 따른 장소의존성이 어떻게 될지도 비교적 선명하게 말하고 있다.

“섬이라서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 이주하게 되면 지금까지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G, 60대, 남성)

“물(도시)에서는 움직이면 돈인데, 우리 마을에서는 아무 돈도 안들고 오히려 돈을 갈라(나눠) 먹고 서로 먹고 살게 해줍니다. 합심해서 송어들이로 먹고 살게 해주고…그런데 밖에 나가면(이주를 의미) 누가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겠나…”(M, 70대, 여성)

“우리 동네에서는 지(본인을 의미)만 부지런하면 먹고 살수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먹을 것도 있고 서로 나눠 먹고, 이 동네가 바로 먹여 살렸던 집니다. 이주하면 그런거 다 없어집니다.”(S, 80대, 여성)

장소의존성에 따른 심정은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잘 드러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이든 세대도 알고 있다. 마을이라는 장소에 의존하며 경제적 가치 창출 등을 하던 삶이 바로 그 마을이 없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들에게 이주는 이들이 말하듯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아래 D의 말처럼 대항마을 그 자체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던 마을 주민들은 이주에 따라 이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나가서 뭘 해먹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보상금 조금 주는 것으로는 집구하기도 힘들텐데 이 동네 떠나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A, 40대, 남성)

“고기 잡다(어장을 의미)가 지금은 다리 놓이면서(연육교가 생기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 동네가 있으니 가능한 것이지만 이제 밖에 나가면(이주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C, 40대, 남성)

“신공항이고 뭐고 다 좋은데 우리가 먹고 살 터전을 없애는 거니까 이주를 하든 뭘

4) 대항마을은 약 170여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 송어잡이를 해오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송어들이’로 부른다. 마을의 공유지(현지어로 내동섬 인근 바다)에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하여 송어를 잡고 이를 판매한다. 매년 봄철 일정 기간동안 이루어지며 그 수익금은 마을의 공동자금으로 처리되고 마을 주민들에게 균등배분한다. 대항마을의 송어들이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덕도에서도 대항마을만이 송어들이를 운영한다.

하든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D, 50대, 여성)

“평생을 이 동네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밖에서 뭐해 먹어서 살지 나이든 우리야 그 령지만 젊은 사람들은 힘들지”(N, 70대, 남성)

3) 장소착근성

대항마을 주민들은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과 함께 자신의 뿌리가 마을에서 시작되고 이 어지고 있고 또 이어질 것이라는 장소착근성도 지니고 있다. 조용한 장소애착으로 불리는 이 장소착근성은 이주에 따라 없어질 마을은 곧 조상대대로 이어짐의 단절이라는 마음에서 드러 나고 있다. 즉, ‘옛날 할아버지때부터 살던 곳’, ‘대를 잇다’, ‘태어나서 자리잡으며 살다’, ‘근 본이 되는 마음’, ‘뿌리이고 본’ 등을 통해 장소착근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이주를 하게 되면, 대가 끊어지고 근본이 없어진다고 여기고 있다.

“저 옛날 할배때부터 살던 곳에 대를 이어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 고 생각했는데, …이주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는 있더라도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는 끊어지는 거지. 마음이 안좋지.”(H, 60대, 남성)

“누가 뭐라고 해도 모두에게 근본이 있지. 어느 동네에 살던 거기서 태어나서 자리잡 고 살면서 그런 근본이 되는 마음을 먹지. 나도 그렇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동네가 없어지면 그 근본이 되는게 없어지는 거니까 속상하지.”(O, 70 대, 여성)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것은 변할 수가 없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 뿌리이고 본이 지. 나나 우리 동네 사람들이나 다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뿌리 내린 이 동네는 변하지 않는… 다(모두) 한가지이지. 동네가 없어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더라도 그 본이 어디인지는 기억하겠지.”(T, 80대, 남성)

장소착근성은 특히 대항마을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여 더 드러나기도 한다. 마 을주민들은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라 대항마을로 이사를 온 사람들, 즉 마을주민들은 이들을 외지인으로 부르는데 이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다고 여긴다.

“저 외지인이야 그냥 중간에 와서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고…우리와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마을이라는 마음이 없지. 그러니 다 같이 이주한다고 해도 저 사람들(외지인을 지칭)에게는 우리 조상이 살아온 이 대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을 모르지.”(H, 60대, 남성)

“이제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방인…그 동네에서 우리가 디디고 있

을 지지가 있겠나 이런 마음...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밭을 디디고 서 있을 때와 다른 마음이 들겁니다. ...외지인도 그렇겠지. 무슨 마음(장소애착)이 있겠나...”(I, 60대, 여성)

4) 이주 지역 선택

이처럼 대항마을 주민들은 대항마을이 지니는 의미와 이주에 따른 심정으로 장소애착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장소애착은 곧 진행될 이주 지역을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보상 책정을 위한 물건 조사 및 현장 조사는 대항마을 주민들에게 이주를 해야 하는 체감도를 더 높였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어느 정도 결정한 단계에 이르렀다. 마을주민들은 정부가 이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몇 곳의 이주 가능 장소 제안 혹은 금전적 지원 등)을 해준다면 그곳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이주할 곳을 정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들이 이주 지역을 스스로 정하게 된다는 것인데, 현재 이주를 선호하는 지역에 대해 모두 의견 표명을 한 상태이다. 모두 의견을 표명한 이유는 정부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이주를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 의견 청취를 하였기 때문이다. 의견청취 일환이었기 때문에 마을 방문과 주민들에게 우선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은 이주하고자 하는 곳을 어느 정도 스스로 정한 상태이다. 사실 마을주민들은 그 전부터 서로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대화를 해왔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이주할 곳으로 크게 세 곳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현재 대항마을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곳은 주로 가덕도 섬의 다른 마을이다. 이들이 비록 다른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같은 섬에 살기 원하는 이유는 아래처럼 ‘우리 동네 살면서 가졌던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가 살아가는 게 된다’, 또 ‘대항 사람이 그래도 섬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생각기에 익숙한’, ‘대항사람처럼 살아가다’ 등이다. 이런 마음은 대항마을에서 지냈던 장소정체성의 유지나 연속을 소망하는 것이다. 지리적 근접성이 그 마음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P의 말처럼 다른 마을이라고 해도 같은 가덕도이고 대항마을과 가깝기 때문에 대항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물리적 토대로서 장소가 없어져도 그 대안 장소를 기존의 장소로 여기며 자신들의 정체성인 ‘대항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가 살던 곳이 이 섬이니까 나는 이 섬의 다른 동네라도 가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살던 여기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그래도 낫겠다 싶어서...우리 동네하고 가까워야지...우리 동네 살면서 내가 가졌던 그런 내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고 내가 살아가는게 되지 않

을까...아무래도 다른 육지에서 사는 것 보다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E, 50대, 남성)

“저기 가덕(가덕도의 동선동 동네를 가덕으로 부름)쪽에 가서 살아야지. 물으로 가면 살 수가 없지. 나는 섬 사람인데 섬에서 살아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항사람이 그래도 섬사람으로는 있어야지 않겠나.”(G, 60대, 남성)

“내가 살아왔고 살아갈 곳도 이 동네인줄 알았는데...그래도 떠나야 한다면 계속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익숙할 것 같은 이 옆에(가덕도 내 인접 마을을 의미) 살아야...”(J, 70대, 남성)

“여기 가덕 섬에서 붙여 있어야지. 가덕 쪽에 땅이라도 사서 집 짓고 살아야지. 우리 동네는 없어져도 그래도 내가 살던 우리 대항하고 가까운데 있어야지...지금 이런 따뜻한 정도 기억 날거고 그 땅이 우리 대항이라 생각하고 살면 지금처럼 대항사람처럼 살아가겠지.”(P, 70대, 여성)

장소가 없어지고 장소가 인접한 다른 마을로 바뀐다고 해도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기존의 대항마을에 일치시키려 하는 의지가 강하다. 거리의 가까움과 같은 섬이라는 사실이 일종의 대안적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항마을은 사라지기 때문에 현실 속 물리적인 차원에 볼 때 거리의 가까움은 성립될 수 없다. 그렇지만 장소정체성은 기억과 경험에 의해 형성되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 속 장소(대항마을)는 비록 흔적은 없어져 버리더라도 사라진 그곳을 심적 좌표로 두고 있다. 그래서 가덕도 내 다른 마을이 장소정체성을 이어갈 대안으로 여겨져 이주할 곳으로 선택된 것이다.

장소정체성과 함께 장소착근성도 가덕도 내 인접한 마을을 이주할 장소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다. 대항마을에 자신의 뿌리의식을 두고 있지만 없어진다면 그래도 그 뿌리였던 대항마을과 가까운 곳에 두고 싶어 했다. 특히 조상들이 살았던 이곳을 떠나는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같은 가덕도 내라면 그 조상들을 생각하기도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여긴다. L의 말처럼 자신의 뿌리였던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원한다. 그리고 ‘태어났고’ ‘부모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Q의 말처럼 ‘원래 자리’로 여길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이주 장소를 생각하고 있다.

“조상대대로 살았던 곳에서 가까운데 있어야...그래야 뭐 지금 이 산소들도 없어지겠지만 옆에서 그쪽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L, 70대, 남성)

“아주 멀리 가야 되지 않는 이상 내가 태어나고 살던 곳, 그리고 우리 부모도 생각할 수 있는 가덕(동선동 마을을 의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더 듭

니다.”(N, 70대, 남성)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터를 잡고 살던 여기 하고 가까운데 있어야지. 그래야 자식들이 찾아오면 정말 집에 오듯이, 고향이 오듯이, 원래 자리로 와서 쉬다 갈 수 있는게 되는 거지.”(Q, 80대, 여성)

이처럼 장소정체성과 장소착근성은 이주 장소를 선택할 때 현재의 대항마을과 가급적 가까운 곳을 선호하게 한다. 하지만 장소의존성은 다른 이주 장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소의존성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마을사람들은 현재의 대항마을과 가까운 거리가 이주 장소로서 최우선의 선호지가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한다. 그 다른 곳이란, 다시 두 곳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가덕도 섬 밖에 있는 가덕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가덕도와는 거리는 전혀 상관없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거주 제공지이다.

우선 전자 즉, 가덕도 섬 밖이지만 가덕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이주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로 젊은 세대의 마을사람들이다. 이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그곳에서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서, 그 일자리를 위해 가덕도와 멀지 않은 곳에 이주하되 혹시 모를 또 다른 일자리와 자식들의 교육 등을 고려하여 가덕도 인근의 도시로 이주하기 바란다. 가덕도 인근의 도시는 현재 대항마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0분 내외의 거리를 의미한다.

“나는 먹고 살아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장하며 살았는데 그게 없으면 내가 먹고 살게 없어지니…그걸 대신해줄 일자리를 주면(가덕도 신공항에서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 이 근처 용원(인근 도시명)이나 녹산(인근 도시명)으로 갈겁니다.”(A, 40대, 남성)

“물질(바닷일을 의미)을 못하게 되면 신공항에서 일을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원이나 이런데 살면서 다니고, 그것도 안되면 용원에서 또 일자리 구해야하고…도시니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학교도 아무래도 육지가 나을 거고…”(B, 40대, 남성)

“우리 나이에 한창 일을 해야하니까 용원 이런 데서 살면서 일자리를 구하든지 하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일자리 주면 그걸하고…바닷일만 하다 이제 먹고 살일이 큰일인데 어쩔수 없이 뭐 도시로 가야지요.”(F, 50대, 남성)

이들에게 대항마을은 경제적 가치를 주는 그 자체였고 그래서 장소의존성도 강했다. 어장과 물질과 또 관광객 대상의 가게 운영 등은 모두 대항마을에 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

지만 그 마을이 없어지게 되어도 이들은 역시 장소의존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항마을 장소에 들어설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할 수 있는 경제 활동 등을 바라고 있다. 대항마을이 사라져 이주하게 될 대가로 제공될 일자리 역시 대항마을에서 비롯된 경제적 가치이다.

이와 함께 이주 지역 선택에서 장소의존성은 또 다른 측면으로도 작용한다. 이주 지역을 선택할 때 대항마을을 떠나게 되면서 지급 받을 보상금, 즉 이 보상금은 대항마을에 거주한 덕분에 생긴 것으로 이 대항마을이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 결과이다. 바로 이 보상금과 또 대항마을에 거주한 덕분에 이주 지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하여 가덕도와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가장 최대치의 경제적 가치를 낼 수 있는 이주 지역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산 시내의 신도시 내 새 아파트를 이주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항마을에 살면서 장소로서 그 마을을 통해 생산수단을 획득하며 살아가다가 그 마을이 없어지면서 그 마을 덕분에 다시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곳으로 이주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동안 동네에서 동네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보상금하고 또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주면 그걸 받아서 먹고 살아야...나는 그런 아파트로 이주할 겁니다.”(C, 40대, 남성)

“나라에서 우리한테도 아파트를 주면서 이주시키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그동안 우리를 먹고 살 수 있게 한 이 터전을 없애는 대가로 그렇게 받아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 아파트 받아서 그렇게 해야...”(D, 50대, 여성)

“이 동네에서 살면서 당장 도시 사람이 되기 힘들어도...나가면(이주하면) 이 동네에서 먹고 살던 것보다 더 낮게 (보상)받아서 그걸로 또 먹고 살아야하니까 부산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를 우리한테 주면 그곳으로 갑니다.”(I, 60대, 여성)

대항마을에서 장소의존성을 지닌 이들은 이주 대가의 원천인 대항마을을 다시 장소의존의 대상으로 삼는데, 앞서 말한 장소의존성에 의한 이주 선택 지역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항마을 주민들 중 이러한 가덕도 밖 신도시 내 아파트로 이주하길 원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한 이들도이다. 사실 이들의 이주 지역 선택은 앞서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따라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그 외지인들의 영향 때문이다. 현재 대항마을은 이주에 대한 보상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모임(각종 대책위원회)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대항마을 원주민들이 아닌 전입한 외지인이 주도가 되어 만들어진 모임이 있다. 거기에 속한 일부 대항마을 주민들은 외지인의 주도하에 신도시 내 새 아파트를 이주의 대가로 시세보다 매우 저렴

하게 제공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그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한다. 이런 아파트를 통해 시세 차익 등을 원하는 외지인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대항마을 주민들의 표면적 상황에서는 알기 힘든 내용으로 현장에서 인터뷰하고 비참여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아래와 같다.

“저렇게 외지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있고…그래서 이 동네 때문에 보상 받는 김에 그걸로 또 먹고 사는 방법인거지.”(K, 70대, 남성)

“외지인들이 이주하려는게 그 사람들한테는 뭐 투자겠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주하려는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투자하는 거지. 어쨌든 이 동네 덕분에 또 먹고 살게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N, 70대, 남성)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은 각 개인의 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규범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장소의존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주하고자 하는 두 지역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에서는 사라진 대항마을에 들어설 가덕도 신공항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위해 가덕도 인근 도시로 이주하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해줄 도심의 아파트로 이주하려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항마을 사람 모두 대항마을 덕분에 생존과 경제적 가치를 향유하였고 또 마을이 사라지면서 그 마을 덕분에 생기는 대가로 다시 경제적 가치를 향유하려고 한다. 대항마을에서 생긴 장소의존성이 비록 그 장소의 사라짐으로 해서 그 형태와 속성은 달라지겠지만 장소의존성이 지속되는 모습인 것이다.

5) 소결

요컨대, 대항마을 사람들이 장소로서 대항마을로부터 비롯된 장소애착에서 어느 감정이 더 작용하는가에 따라 이주하고자 하는 곳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주 장소를 선택할 때 장소정체성과 장소착근성이 더 강하게 작용된 이들은 현재의 대항마을과 가급적 가까운 곳을 원한다. 그래서 같은 가덕도 섬 내의 인접 마을로 이주하고자 한다. 반면 장소의존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이들에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라 제공되는 일자리를 고려하고 만일 그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도시로 이주하려는 이들과, 한편으로는 대항마을 떠나면서 받게 되는 대가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한다. 인터뷰를 하면서 고령자의 경우 자식들 집과 근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⁵⁾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어떤 함의를 주는 것일까?

5) 대표적으로 R의 말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여생을 ‘살 수 있는 곳’은 그들의 장소였던 대항마을이기

IV. 연구의 함의 및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따라 이주하게 될 대항마을 주민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장소애착의 각 측면에 따라 이주할 지역을 다르게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크게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장소애착은 물리적 실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함께 사라지지 않고 이주 지역을 선택할 때도 고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주 후에도 그 장소애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책사업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주민들에게는 이를 고려한 이주 장소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장소정체성과 장소착근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우에 그렇다. 기존의 마을을 더 생각하고 그곳과 가까운 곳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것은, 비록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감정은 장소애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개인에게 장소가 어떤 의미로 자리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개인의 자아 지속성을 설명하는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는 비록 생활과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한다. 특히 개인 자아의 지속성은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이 되더라도 한 인간의 인격구조와 자아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Atchley, 1989; Onega, 1997). 섬 마을이라는 특수성까지 지닌 대항마을에서 태어나서 거주지 변동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이들에게는 특히 더 그렇다. 장소애착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주 지역 선택이라는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조용한 장소애착인 장소착근성도 이주 지역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적어도 비자발적으로 이주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장소착근성도 조용한 감정만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처럼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지가 아주 작은 마을일지라도 그 마을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장소를 잃는 것이므로, 그들의 장소애착의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의 이주 단지 조성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들이 장소애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의 거리와 여건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보상을 위한 현장조사가 아니라 이주 단지 선호 지역 선택에 관한 현장조사도 필요하다. 약 15조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아주 작은 마을주민들의 장

때문에 자식들 옆이 아니라 대항마을 근처로 간다는 것인데, 이는 대항마을이 그들의 삶과 깊이 관련된 장소였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제 못살게 되겠지만 살던 곳이 제일 좋지. 입던 옷이 좋듯이. 자식들이 근처로 오라고 하지만 안갈거고...이 동네하고 제일 가까운데로 갑니다. 그게 내가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지...”(R, 80대, 여성).

소애착을 고려하는 일에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아닐 것이다. 대형국책 사업의 대상 사업지가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해도 그들의 장소애착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두 번째 함의는 국책사업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주해야 하는 마을주민들이 기존의 마을에서 지니고 있던 장소의존성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이해는, 마을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장소의존성을 지속하려고 하는지와 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려는데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기존의 마을 자체가 준 경제적 가치와 그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생계를 고려할 때 비자발적으로 이주해야하는 마을주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후자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분히 갈등 발생의 가능성과 관련되는데, 그 이유는 장소의존성에 의한 이주 지역이 두 곳으로 구분되었을 때 이주의 대가로 투자처인 새로운 지역의 주택 구입에 초점을 둔 이주 지역 선택 방식은 사실 대항마을에서 원래부터 살아온 사람들의 당초 의견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따라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마을로 전입하여 그들의 의견과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을주민 중에는 그 영향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말하는 이주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마치 이주 상황에서 중계자가 생겨 그 역할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Robinson & Segrott, 2002). 외지인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과연 기존 마을주민들의 장소의존성과 동일한 애착을 찾아볼 수 있을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마을주민들은 어업과 승어들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외지인으로 불리는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항마을에서 마을이라는 장소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더구나 어촌계원이 될 수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 마을에 의한 생계유지 방식에 참여 자체를 할 수 없다. 외지인들에게 마을이라는 장소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애착이 형성될 정도의 시간도 적지만, 경험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환경 즉 마을과 마을주민 간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그것도 부족하다. 경험은 환경(마을)과 인간 중 어느 한쪽의 역할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Dewy, 1938). 서로의 상호작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항마을에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이 행정적으로는 마을주민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 이주에 대한 대가 지급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주에 대해 비교적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주 과정에서 갈등의 심화 정도가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항마을에는 외지인 주도의 대책위원회에 의해 기존 마을주민들의 의견 소외, 보상 관련 현장 조사 지연, 이주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 따른 마을 내 잠재적 갈등 등이 존재했다. 거기에 동조하는 기존의 마을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존재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장소의존성에 따른 이주 지역 선택이 더 적절하다기보다는, 국책사업의 주체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사라지는 대항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장소의

존성의 심정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여기서 외지인에 의한 의견 불일치, 지연, 갈등 야기 문제는 앞서 인용한 마을주민들의 말과 주민들간 대화로 이루어진 비참여관찰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더 구체화하여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는 비록 본 연구의 일부분의 내용에 해당하지만 내용 전개 상 근거의 충분성 정도에 따른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인터뷰와 비참여관찰 과정에서 외지인에 대해 언급한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외지인 관련한 그들의 발언이 많이 사용되지 않기를 부탁하였다. 이는 외지인 관련한 내용이 민감한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현재 작성된 수준으로 확인받으며 그들의 부탁에 따랐다. 둘째, 본 연구는 마을주민들의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마을주민에 의해 외지인이 언급되면 그 언급에 기초한 수준으로 작성하였다. 다시 말해 외지인 관련 사항은 분명 외지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마을주민들이 말하는 외지인 관련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살아온 이들이 인터뷰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이 외지인으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의견 불일치, 지연, 갈등 야기 문제)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앞서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외지인 관련 민감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비록 본 연구 내용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또 현장 인터뷰가 지니는 제약에 따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국책사업으로 사라질 마을주민들의 장소애착에 기초한 이주 지역 선택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일 경우 자칫 실체설에 입각한 공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본 연구와 같이 사업 대상지가 작은 마을일 때 마을주민들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쉽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비록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사례로 한 연구였지만 향후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책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기철. (2017). 유럽 유입 비정규 이주자의 이동 경로와 목적지 선택의 결정요인. 「지중해지역연구」, 19(3): 1-26.
- 김도형. (2023). 공공주택지구 쪽방촌 주민의 생활실태 및 이주대책 설문 분석: 대전역 마을을 사례로. 「도시행정학보」, 36(1): 29-57.
- 김민주. (2023). 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른 마을소멸 위기와 그 역설. 「지방행정연구」, 37(1): 343-374.
- 김원동. (2015).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향수 너머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 탐색. 「농촌사회」, 25(2): 93-144.
- 김유하·김이선·나윤영·권송이. (2023).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의향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31(2): 31-63.
- 김은석·하지영. (2016).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선택 동기와 준비경험: 대졸 남성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6(2): 419-442.
- 김종규. (2013). 기억, 상상력 그리고 상징. 「인문과학」, 51: 109-130.
- 도난영·최막중. (2006). 순환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재정착 및 이주 세입가구의 특성과 주거만족도 비교분석: 서울 난곡지역 사례. 「국토계획」, 41(5): 81-92.
- 박경윤. (2014). 장소애착 형성요인의 환유 적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5(6): 147-159.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2022). 「강서구 구정 백서: 2018-2021」. 부산광역시 강서구.
- 송문달·박경환. (2023). 중국 옌타이(煙臺)의 소성(所城) 도시재생사업에서 원주민의 퇴거와 장소애착.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6(2): 117-136.
- 신지연. (2021). 한국을 떠나는 여성-청년들: 경계를 넘는 초국가적 이동 주체. 「미디어, 젠더&문화」, 36(3): 133-185.
- 안하경·김종섭. (2023). 왜 도망가야 하며,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가?: 중국의 청년담론과 신(新)화교 청년들의 국제이주. 「국제지역연구」, 32(4): 135-172.
- 이민주·백일순. (2024). 귀농귀촌, 누가 선택하는가?: 세대별 농촌 이주 의향과 영향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37(3): 73-96.
- 이상욱·권철우. (2019).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지역 선택: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7(1): 43-66.
- 이용규·계용준. (2011).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에 의해 이주된 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세종시 개발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국토연구」, 71: 3-23.
- 이용승. (2014). 국제 이주의 동기에 관한 연구: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디

- 아스포라연구», 8(1): 119-144.
- 이정훈. (2017). 댐 건설에 따른 동성반촌의 집단이주와 가문정체성의 형성 : 전주류씨 수곡파의 집단이주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4): 47-64.
- 이재복. (2023). 무엇이 디아스포라를 가능하게 하는가?: 이주, 기억, 경계 그리고 상실에 관한 이야기. 「비교한국학」, 31(2): 19-45.
- 정재원·구자훈. (2024). 국·공유지를 점유한 무허가 정착지의 이주대책 중요 요인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간 비교 분석: 서초구 3개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22(1): 159-170.
- 정형식. (2013). 대규모 댐 건설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주민의 삶의 질 변화. 「GRI 연구논총」, 15(2): 5-28.
- 최선·이정은. (2022). 지방정부 청년정책과 이주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청년들의 이주요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30(4): 155-180.
- 최열·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대한국토계획학회지」, 40(2): 53-64.
- 한겨레21. (2021). 가덕도 주민들 “산과 바다만 버리고 공항 못 지을 수도”. 4월 21일자 기사.
- 현영섭. (2012). 재개발 지역 중·고령 이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 해체와 평생교육요구. 「평생교육학연구」, 18(1): 23-49.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홈페이지(jumin.mois.go.kr).
-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법」.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Atchley, R. C. (1989).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29(2): 183-190.
- Augusto, Asaf and Russell King. (2020). Skilled white bodies: Portuguese workers in Angola as a case of North-South migration. *The Geographical Journal*, 186(1): 116-127.
- Canter, David. (1997). “The facets of place”, pp.109-147, In Gary T. Moore and Robert W. Marans(eds.),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Springer US.
- Crawley, H. (2010). *Chance or Choice? Understanding Why Asylum Seekers Come to the UK*. London: Refugee Council.
- Dewey.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 Graves, P. E. (1980). Migration and Climat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0(2): 227-237.
- _____. (1983). Migration with a Composite Amenity: The Role of Rent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3(4): 541-546.
- Green, Linda. (2011). The nobodies: neoliberalism, violence, and migration, *Medical anthropology*, 30(4): 366-385.

- Greenwood, M. J. (1997).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ed Countries", Chapter 12, In Rosenzweig, M. R.(ed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1: 647-720.
- Gustafson, P. (2001). Roots and rout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mobil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3(5): 667-686.
- Harris, P. B., Brown, B. B. and Werner, C. M. (1996). Privacy Regulation and Place Attachment: Predicting Attachments to a Student Family Housing Faci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 287-301.
- Hidalgo, M. Carmen and Bernardo Hernandez.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 Hull, R. Bruce, Mark Lam, and Gabriela Vigo. (1994). Place Identity: Symbols of Self in the Urban Fabric.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8(2): 109-120.
- Onega, L. L. (1997). Expanding the cope of continuity theory application to gerontological nurs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3(2): 29-35.
- KNN. (2022). "가덕도 신축 건물 우후죽순, 개발행위 제한까지". 2월 21일자 방송 기사.
- Koser, K. and Kuschminder, K. (2015). *Research on the Assisted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Of Migrants*. Geneva: IOM.
- McAndrew, F. T. (1998). The measurement of "rootedness" and the prediction of attachment to hometown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4): 409-417.
- McCann, P. (2013). *Modern Urban and Regional Economic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Mohan, Giles and May Tan-Mullins. (2009). Chinese migrants in Africa as new agents of development? An analytical framework.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1: 588-605.
- Mullainathan, Sendhil and Eldar Shafir. (2014). 이경식 옮김. 「결핍의 경제학」. 알에이치코리아.
- Najafi, Mina and Mustafa Kamal M. Sharif. (2012). The concept of place attachment in environmental psychology. *Elixir Sustain. Arc.*, 45: 7637-7641.
- Partridge, M. D., Rickman, D. S. (1997). The Dispersion of US State Unemployment Rates: The Role of Market and Non-market Equilibrium Factors. *Regional Studies*, 31(6): 593-606.
- Proshansk, H. M. (1978). The City and Self-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10: 147-169.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Robinson, V. and Segrott, J. (2002). *Understanding the Decision Making of Asylum Seekers*. London: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 Shamsuddin, S. and N. Ujang. (2008). Making Place: The Role of Attachment in Creating the Sence of Place for Traditional Streets in Malaysia. *Habitat International*, 32: 399-409.
- Smaldone, D. and C. Harris and N. Sanyal. (2005). An exploration of Place as a proces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4): 397-414.
-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 64: 416-424.
-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Van Hear, N. (2014). Reconsidering Migration and Cla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8(Fall): 100-121.
- Williams, D. R. and J. W. Roggenbuck. (1989). Measuring place attachment: Some preliminary results. *Paper Presented at the Session on Outdoor Planning and Management, NRPA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 20-22. October San Antonio, Texas.

김 민 주: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의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2013.3~현재). 공공인재학부장,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경인행정학회 연구위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 행정학 분과위원 등을 역임하고, 국회도서관 자료추천위원, 경기북부병무지청 정책자문위원,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방송토론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단독 저서로는 'AI 상상권력'(2024), '관료의 언어와 이미지 생산'(2023), '면접지배 사회에서 살아가기'(2022), '자치와 보이지 않는 권력'(2021), '행정계량분석론' 제2판(2021), '호모 이빨루쿠스'(2020), '재무행정학'(2019), '공공관리학'(2019) 등이 있다. 그 외 또 다른 다수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관심 분야는 평가, 재무, 계량, 권력, 철학, 관리 등이다 (minju0803@gmail.com).